

조경설계에서 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in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은진* 조경진**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 of Seoul
Kim, Eun Jin · Zoh, Kyung Jin

I. 서론

조경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데, 이는 조경이 예술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과정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창작(創作)과 모방(模倣)이다. 자연물을 원상(原狀)으로 창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예술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예술작품을 바탕으로 창조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창작이 아닌 모방으로 여겨지는 예가 많다.

한국 현대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읍스테드 조경양식을 전형적인 설계모델로 여기고 이를 모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전통조경양식을 현대공원에 재창조함에 있어 전통조경의 내용적 의미보다는 형태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현대조경작품에는 독창적인 설계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곡된 조경설계의 양상을 바로잡고 창조적인 설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새로움의 추구는 그 양상이 아무리 충격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보는 것 내지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창조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움의 창조는 유에서 출발되는데, 과거에서 도출된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이 되고, 또다시 변형을 함으로써 창조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 특히 회화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창조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져 온 재현의 개념을 파악한 후, 조경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재현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현대조경작품 5개소를 선정하여 설계의 경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로서 재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II. 본론

1. 재현의 이론적 고찰

재현은 회화만이 아니라 건축, 문학 등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재현과 모방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재현은 주제를 가지므로 모방과는 구별되는 예술적 창조개념이다. 예술에서 재현은 원형을 유사하게 묘사함으로써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재현의 대상은 물리적 세계, 역사적 세계, 허구적 신화세계, 이념적 가능성 세계 등 다양하다. 또한 재현의 방식은 예술작품과 원형과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직설적 재현과 추상적 재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원형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원형의 정서적 내용을 추출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현의 방식은 예술가의 성향이나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게된다. 재현은 원형을 현실세계에 다시 나타냄으로써 존재론적 특성을 갖게 하는가 하면, 원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2. 재현으로 본 조경 공간

재현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 조경공간을 살펴본 결과 재현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왔다. 각 시대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나타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간에 재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첫째, 이

상향의 재현이다. 이상향은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양에서는 무릉도원등 이상향의 재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의 재현이다. 자연은 모든 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연의 본질, 자연의 외양, 자연이 행하는 것을 재현할 수 있다. 셋째, 신념의 재현이다. 고대인과 중세인들은 종교적 이야기를 공간 안에 재현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신을 가까이하고자 하였다. 넷째, 내러티브의 재현이다. 내러티브는 일종의 이야기로서, 3차원 공간 속에 텍스트적 이야기를 재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정공간은 인간의 이상향, 자연 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같은 문자 텍스트 등 다양한 소재를 재현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이를 직설적 또는 은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풍부히 하였다.

3. 한국 현대조경작품 분석

조경비평의 대상으로서 조경작품은 맥락, 내용, 형식에 의해 형성되는데, 내용은 설계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형식은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시각적 형태 및 요소가 되며, 맥락은 설계의 접근과 주변과의 상관성 및 조성 배경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의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형태적 유사성에 의한 모방이 된다. 그러나 재현은 형식, 내용, 맥락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작가적 해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파리공원, 울림피공원, 여의도공원, 분당중앙공원, 일산호수공원을 내용, 맥락, 형식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한국 현대공원은 유명한 조경가의 작품인 움스테드 조경양식과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설계개념을 찾거나 하였으며 최근에는 미래지향적인 생태적 개념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설계의 주제는 시대마다 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경가가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양해져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의 내용과 맥락이 간과되고 형식만이 남은 모방작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문화의 도입과 전통의 단절과 같은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작가적 해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시각적인 부분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III. 결 론

역사적 조정공간은 자연, 사상 그리고 이야기 등을 상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풍부히 하였다. 이와 같이 조정공간에서 재현은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연결시켜주며 전통과 현대의 시간적 연계를 피하게 하고 작은 공간에서 큰공간으로 확장과 축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 현대조경작품은 한국적 생활양식이나 고유한 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무의미한 공간을 양산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상이 갖는 맥락, 내용, 형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조경가의 주관적인 해석과 이에 따른 표현방식이 요구된다.

조경설계는 아무 것도 없는 無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문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재창조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형태만을 모방에서 벗어나 작가적 정신이 살아 숨쉬는 재현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재현은 인간에게 공통되는 원형을 현실에 드러내 주며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에 재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으며 비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에 담게 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적 재현개념을 적용시켜 조경의 예술적 위상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재현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미흡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